尹, 김종인·김병준·김한길 '3김 선대위'

불협화음 없이 시너지 낼지 관심
6개 총괄본부장 인선 완료
선대위 1차 인선 발표 순연

국민의힘 선대위의 1차 인선 발표가 순연됐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이른바 '3김(金)'과 손잡고 '더 큰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막판 이견 조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18일 "6개 분야별 총괄본부장 인선 작업은 완료됐다"며 "그 인선에 대해선 김종인 전 위원장도 대체로 수긍했다"고 밝혔다. 조직·직능·정책·홍보·당무 지원·특보 등 '거점 포스트' 하마평에는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김태호 의원과 임태희 전 의원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으며, 세부 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의 관심은 오히려 '3김'이 선대 조직안에서 불협화음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윤 후보 본인은 셋 중 누구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개혁의 키를 쥐고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여권 내 '비문재인·비이재명' 세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을 김한길 전 대표를 모두 끌어안아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가 워낙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려는 욕심이 크다"며 "세 분을 한꺼번에 모시려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3김'을 축으로 하는 선대위 구상은 윤 후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국정 운영 모델과도 맞닿은 측면이 있다. 윤 후보는 최근 가까운 참모들에게 "선대위 인선을 비롯한 선거운동 자체가 향후 집권했을 때 어떤 의제를 제시하고 국정을 운영할지 국민께 보여주는 계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안팎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선, "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은 올드 버전"이라며 "나 역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정치참여 선언 전부터 조언을 구해온 김한길 전 대표를 끌어들이려는 것이 집권 시 불리한 원내 지형을 돌파,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가 내부 혼란을 겪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윤 후보 주변에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조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이달 내 출범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 그 기간에 '3김'과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설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발이익환수 3법 막는 국민의힘 제2의 곽상도 꿈꾸는가"

민주당, 국토위 상정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며 관련법의 국토위 상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 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못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더니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감 내내 개발이익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 집권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이용해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도 요청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가상화폐, 규제에서 진흥 전환을"

송영길 민주 대표 밝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해 글로벌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 후기에 육의전만 허용하고 금난전권을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상자산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규제에서 진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분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 문제점을 잘 통제하되 건전한 시장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이해찬 만찬 회동 선대위 '구원등판론' 설왕설래

'위기극복 적임자' 긍정적
'고문·자문 역할 적임'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와 17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8일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갖춘 풍부한 경험, 경륜을 들어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맞닥뜨린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긍정 의견이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당이 가진 훌륭한 자산을 총결집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선대위와 후보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다소 '올드'한 이미지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안팎의 여론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고문, 자문의 역할이 맞다고 본다"며 "그새 당사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했다.

여권 원로 인사인 유인태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은 주특기가 아니다"라며 "9년 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지던 해에 그때도 별로 대선에 도움 안 된다고 (당 대표를 하다) 중도 사퇴했던 사람을 뭘 또다시 전면에 내세우겠느냐"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톱'으로 유력시되면서 '33년 악연'을 지닌 두 사람이 이번 대선판에서 또 맞붙는 그림이 연출될지 주목된다.

여야 두 후보 모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합계 0선'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장 간 대리전 구도가 성사되면 양 진영 간의 '상왕(上王)' 논쟁도 격화하는 조짐이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접촉을 두고 "결재판을 가지고 갔지만 반려 당하고 상왕의 심기까지 건드린 것"이라며 "시작부터 삐걱삐걱, 고장 난 수레가 요란하기만 하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비상이 걸리니까 이해찬 전 대표를 이제 모셔온다는 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지금 갑자기 중간에 단추 끼우려고 하는 이게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혁신위원회 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의원들의 여러 건의를 당 지도부가 듣고 신속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개혁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고 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당 대표를 만나 당 혁신을 요구했고 그것을 위한 혁신위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도 이런 충정을 잘 받아들여서 혁신위를 신속히 구성해 당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치고 혁신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한 관계자는 "여러 주장 중 하나이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당이 좀 더 젊어지고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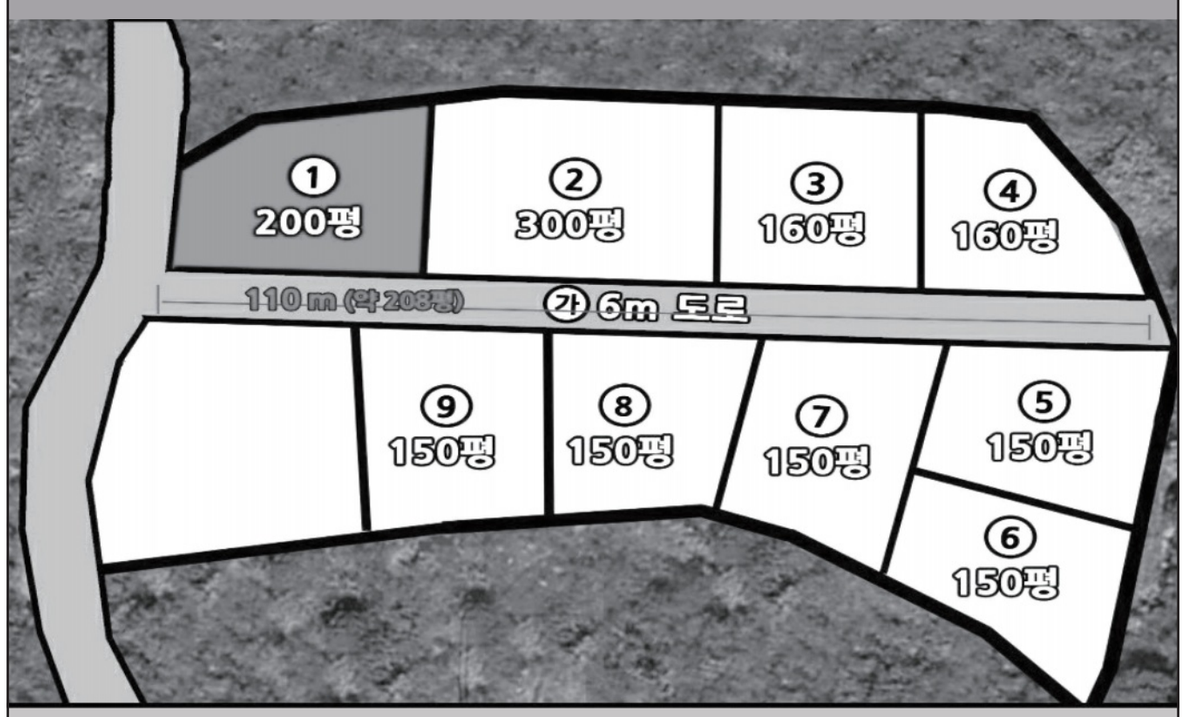
성장·공정·기후 해법은…여야주자 한자리서 비전경쟁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18일 SBS D포럼에 참석해 성장, 공정, 기후위기, 청년 등 주제를 놓고 공약 경쟁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 마련된 무대에 차례로 올라 차기 대통령이 실현해야 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4인의 주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먼저 연설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대기실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잘하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넸고, 윤 후보는 "잘하셨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첫 연사였던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연설을 모두 들은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회의 확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 입시와 취업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디지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해법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중심국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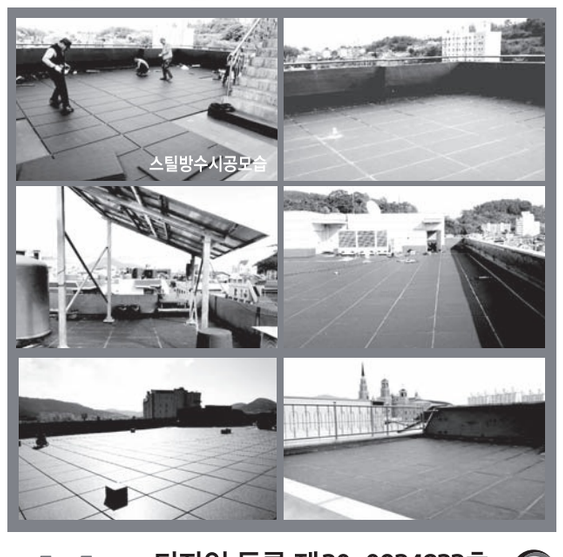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